

자 주 로 아 조 미

최익규 개인전

2025.

12.01^{wed} ~ 12.15^{mon}

최익규

Choi Ik-Gyu

학력

충북대학교 졸업

충북대학교 석사 졸업

개인전

1996 최익규 개인전, 국립청주박물관. 청주, 대한민국

2000 50인의 군집 개인전. 청주 예술의 전당, 청주, 대한민국

2004 최익규 개인전, 청주 신 갤러리, 청주, 대한민국

2006 우울증, 갤러리 PICI, 서울, 대한민국

2010 발아, 코사스페이스, 서울, 대한민국

2014 핑크몬스터, 청주 시립미술관 대청호관, 청주, 대한민국

2015 베니스여행, 쇠마미술관, 청주, 대한민국

2019 하하하 (Four Rooms, Local Project), 청주 시립미술관, 청주, 대한민국

2023 한땀-한땀, 충북 갤러리, 인사동 서울, 대한민국.

2025 시간의 흔적, 스페이스 결, 서울, 대한민국

2025 시간의 흔적들, 충북갤러리, 인사동 서울, 대한민국

작업실 위치: 충북 청주시

E-mail :choimyun61@naver.com

최익규

Choi Ik-Gyu

단체전

- 1987 부산청년 비엔날레, 부산 시립미술관, 부산, 대한민국
- 1992 한, 일 신세대 현대미술 교류전, 국립 청주 박물관
- 1993 서울 현대미술제, 서울한국문화예술원 미술회관
- 1997 대청호 국제 환경 미술제(문의 일원 설치미술.)
- 1998 한,일 현대미술 교류전,(림계전)(일본 후나바시 시립 미술관. 청주 월천갤러리.
- 1999 한,일 현대미술 교류전(부산 시립 미술관.)
- 2004 4인 4색전(대전 롯데 화랑.)
- 2006 김수현 미술상 수상전(청주 홍갤러리,)
- 2011 신미술관 초대전(애프터 입팩트.청주 신미술관)
- 2012 대청호미술관 초대전
- 2013 후기애스팩트전(쇄마미술관)
- 2014 대청호미술관10주년기념전,보편적 미술관의 서사,(대청호미술관)
충북민족미술인협회 기획 전국작가 초대전(ART FESTIVAL,청주 우민아트센터)
제1회청주국제현대미술전(새로운 아시아의 공감과 차이)(청주 쇠마미술관, 운보미술관)
- 2015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 참가(Jump into the Unknown, 이태리 베니스 Palazzo Loredan, 2015.5.8~6.18)
올해의 좋은작가 상 수상전 청주 무심 갤러리, 제 56회 국제 예술전
- 2016 한국 네덜란드 현대미술교류전 (새로운 꿈과 새로운 미래 / 네덜란드 헤이그 QUARTAIR 미술관/청주쇄마미술관 교환전시)
현대 예술그룹 슬리퍼전, Shoebox의 세계, 청주 시립미술관 오창관
삼인 삼색전, 대한민국 청주 더9 갤러리
대한민국 네덜란드 현대미술 교류전 - 새로운 꿈 새로운 미래 ,
Spheres of Coexistence, 네덜란드 헤이그 QUARTAIR
대한민국 청주 쇠마미술관
- 2017 신 미술관 특별전 실례합니다, 일본 교토/대한민국 청주
Suzanne Bartos 와 최익규 전, 오스트리아 시드니 Articulate Project Space
33회 사라예보 국제 축제 Sarajv skaZima 2017, Sarajevo Substance - 실크로드 Art, Sarajevo, Bosnia and Herzegovina
슬리퍼전(한,일작가 교류전)청주, 일본도쿄
- 2018 권태응 오장환 탄생 100주년 기념전, 대한민국 청주 숲속 갤러리
이것이 청주미술이다, 대한민국 청주 청석 갤러리
- 2019 청주 시립 미술관Collection 전시, 대한민국 청주

최익규

Choi Ik-Gyu

단체전

- 2020 遭遇与相处, 대한민국 중국 국제 교류 전시, 대한민국 청주 미술관
- 2021 The New Normal -조각을 조각하다, 대한민국 광주 Biennale 전시Room 5
공통분모 특별전, 청주 공예비엔날레 전시관
- 2022 새로운 미술의 다른 그리고 변형 대한민국 쉼마 미술관
공통분모 특별전, 공예비엔날레 전시관
- 2023 국제 현대 미술전, 대한민국 청주 Schema미술관
공통분모 특별전
Culture Factory Museum of Art, 대한민국 청주 숲속 Gallery
- 2024 ANIMATE: Birth of Motion 숲속 갤러리, 문봉전(청주고100주년기념전) 시립오창관
- 2025 제자리걸음전 청주 소구무시갤러리, 1+1+1+1+1+1展 청주교대 미술관
오아시스전 청주교대미술관
청주국제현대미술전 쉼마미술관, 그대어떻게 살것인가? 청주시립미술관 오창관

수상경력

- 충북미술대전(1986)
- 전국대학미전 特選(1986)
- 중앙미술대전(1990)
- 중앙미술대전 特選(1991)
- 대한민국미술대전(1992)
- 중앙미술대전 特選(1992)
- 중앙미술대전(1993)
- 김수현 미술상(2006)
- 2015청주올해의 좋은 작가상 (2015)

작가노트

한동안 의미 없는 단순한 바느질 선 긋기와 즉흥과 우연에 기댄 유희적 바느질 선 드로잉의 반복을 해왔다. 최근에는 그 위에 채색을 덧 입혀 나뭇바느질에 반복에 지루함에서 나뭇 예술처럼 느껴지도록 화장하기도 하고, 이번 작업엔 바느질을 완전히 빼고 물감을 여러번 덧 칠해서 두껍게 떡칠하여 진득함이 묻어나오는 (마치 시간의 때가 켜켜히 쌓인 것 같은) 물성을 즐기고 있다. 나는 내 작업이 내 삶에 충분히 성숙되지 않는 철학? 또는 소위 예술적이라는 의미 들을 지워 냄 으로서 비로소 진솔한 의미가 생기고, 예술적인 어떤 성역을 부정하는 작업을 추구하므로 나뭇 순수한 본질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러므로 최대한 의미를 제거한 반복적 노동행위를 통한 미려한 성실성에 기댄 시간들을 즐기고자 했다.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어리숙한 예술에 대한 불안한 믿음과 알 수도 없는 예술적이라는 설익은 행위 들이 나의 귀중한 짧은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불안해 하면서 마치 안개 속을 방황하며 갈 팡 질 팡 이리저리 걷고 있다. 날것의 나의 미숙함을 드러낸 솔직한 인생철학적 고백에 기댄 작업 행위들이 결국은 나의 솔직한 자화상에 가깝지 않을까? 그러길 바란다.

전시소개

최익규 전시를 축하하며

시간의 흔적

최 익규의 예술은 근면함에서 비롯된다.

근면하다는 것은 피를 내지 않고 한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을 본다는 것이다.

그가 바느질 작업을 선택한 이유도 그러한 맥락에 닿아 있다. 한 땀 한 땀 움직임에 어설픈 건너뛰는 있을 수 없다. 느린 일이다. 느린 행보는 정신을 더욱 날카롭게 하기도, 때로는 아주 흐리멍덩하게 하기도 한다.

이 숨바꼭질 같은 번덕 속에서 온갖 속된 유혹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이것은 그가 추구하는 예술의 재료들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속된 유혹이란 고상한 예술, 예술가로서의 부와 명성, 과대 포장된 지식과 명분, 유행에 편승한 작품” 등이다.

어느 누가 이런 유혹을 견뎌낼 수 있을까? 사실 이런 류의 욕망은 어느 순간이고 행복에 젖어 들게 한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행복의 조건도, 그렇다고 애써 외면할 대상도 못 된다. 단지 훌륭한 예술의 재료일 뿐이다.

바느질이라는 지난한 작업 속에서 그는 상념(想念)을 무척 소중한 모티브로 끌어온다.

온갖 사소한 과거의 일화들, 미래의 망념에 가까운 꿈들이 ‘즉 현재적’ 몰아의 작업행위 속에서 뒤섞이며 들쭉날쭉 거린다.

그는 이러한 상념들을 홈질에 차곡차곡 꿰어 매달리게 한다. 이것이 그가 상념을 끌어들여 시간의 흐름을 시각화 하는 방법인 것이다.

그에게 상념은 욕망이자 길이다. 그 욕망을 한 땀 한 땀 나열하는 작업은 느린 시간의 기록이다.

느린 시간의 기록은 몰아의 상태로 이끌고 작품의 순수성을 더하게 한다.

그럼에도 그의 성찰적 기질은 그 마저도 용납을 못 한다.

결국 그는 생각을 갈아엎기에 돌입한다. 자신의 순수성에 대한 회의로 인하여 그토록 느리게 공들인 시간의 기록들을 서투른(?) 페인팅으로 지워 나가는 것이다.

대교 약쥬(大巧若拙)은 그의 예술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그가 페인팅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질박하고 어설피게 덧 칠 된 물감 층 아래에서, 그의 느린 바느질의 기록들이 오히려 더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이다.

그는 바느질의 고단한 시간 속에서 상념을 점, 선으로 나열했고, 그 상념의 찌꺼기가 화면에 가득 찼을 때 마다 그의 태도는 더욱 순수한 예술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그 한 땀 한 땀에 담긴 순수한 그의 정신은 물감의 두꺼운 표피 속으로 봉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감에 덮여진 시간의 흔적들은 도톰하게 일어난 혈관처럼 다사 생명력으로 꿈틀대고 있다.

그는 봉인된 시간의 흔적에서 생명을 틔우려 하고 있다.

글쓴이 김 사환

이재현

200x140cm

Acrylic color

2025





물감 덧칠하기

65x53cm
Acrylic color
2025



물감 덧칠하기

65x53cm
Acrylic color
2025



물감 덧칠하기

200x140cm
Acrylic color
2025

미련한 성실성

140x5000cm, 가변설치
광목천에 바느질
2023



아버지에게

210x140x4cm

광목천에 바느질

2019





자화상

90x53cm

천에 바느질 수 채색

2025

초		바		개		러	리
	ㅏ	ㅓ	ㅕ		ㅗ	ㅛ	ㅣ
	ㅇ		ㄱ		ㄹ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41-1 인사아트센터 2층